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2. 6. 5 ~ 2022. 6. 25 제266호

차별금지법, 민주당의 입법 독주... 시민들 단식투쟁·성명서 등으로 강력 반발

지난 15년간 국민의 반대 여론에 밀려 표류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이 최근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과 함께 이에 대해 기독교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강력하게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167석으로 국회의 과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강행한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가 지난달 25일 열렸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당의 사전 합의 없이 추진된 공청회라며 보이콧을 선언, 진술인 추천도 거부해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이에 관련 전문가와 단체가 잇따라 단식투쟁과 성명서 발표 등으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하고 있다.

그동안 올바른 성윤리 정립을 위해 최일선에서 이론 개발과 강의로 활동해온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는 "말쭙한 약사직과 약국을 잡고 지난 10년 넘게 이 사역에 참여해온 사람들

로 이번처럼 위기감을 느낀 적이 없다."며 지난 23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국회 앞에서 텐트를 치고 단식기도를 시작했다. 김대표는 "분명 공청회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언론은 차금법이 공청회를 통과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차금법의) 상세 내용을 알면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법이다. 주변에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의 기자회견에서 김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법사위 소위에서의) 공청회 진행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아니다.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에 대한 찬·반의 가치가 격돌

하기 때문에 차금법에 대한 합의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며, 국가는 합의가 불가능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특정 가치관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원 전 총신대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약자인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성경적인 법'이라고 한 패널 참석자 김종훈 신부의 의견에 대해 성경이 제시한 목록에는 동성애자가 없다면서, 또한 동성애자는 사회적 약자의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김 신부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혐오·차별을 하지 말라는 주장에 대해, 성별이 남녀로 구성돼 있다는 것은 편견이 아니라 비과학적인 거짓말에 대항하는 과학적 진실이라고 반박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Interview



김용훈 장로(복음가득한교회)

“집사·장로로 구성된 사역팀이 복음을 선포하며 은혜를 누렸어요”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이 소망이 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해외 선교를 가기 위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 지점장을 그만두고, 일반 영업직을 자원

했다. 집 한 채 정도는 얼마든지 살 수도 있었지만, 가난한 자에게 흘러보내 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재산을 쌓아 놓지 않았다. 선교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선교를 하지 않을 때, '나라도 갈 수 있을까?' 물으면 'OK!'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김용훈 장로를 만났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50)

자신을 드리는 믿음 '헌신'으로 복음을 누립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실로 간주하게 되면, 여겨진 진리가 우리 삶에 실제로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드리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 복음이 정말 너무 기쁘고 놀랍다는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요...'라며 변명하고 회피하면 나중에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찢러

뚫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유보하고,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딴 데로 관심을 기울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드리는 결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 삶에서 진리를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드리십시오. 매섭게 결단하고 이미 여긴 진리에 자신을 드리십시오. 우물쭈물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이 자신에게 실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예배라고 권합니다. 이 드리는 믿음을 우리는 흔히 '헌신'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실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내 몸, 나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헌신은 과격한 믿음 가진 누군가에게만 해당된거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일러스트=김경선

12장에서 '복음의 결론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로 원하는 말이 있는데 네 전부를 헌신하라.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복음을 누리려면 '결단'하고, 자신을 '드리는'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이라는 말의 오

해도 풀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 재능, 소유 등 나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부, 내 존재를 진리에 기꺼이 내어드린다는 것은 결국 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냐,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포토뉴스

교회는 예배당 아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



제공: 김경숙 선교사

아프리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무허가 폭방촌에 세워진 암파시카 교회의 주일예배 모습이다. 암파시카 지역은 수도의 '이맘바'라는 강변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전기도 수도도 없이 비닐과 판자로 열기 설기 집을 만들어 살고 있는 곳이다. 이들은 처음, 예배를 드릴 마땅한 장소가 없어 야외에서 비와 바람을 맞으며 예배를 드렸다. 그러다 아이 어른 할 것 없

이 모두 손에 손에 돌과 모래와 물을 나르며 예배당을 지었다. 이곳은 또 우기가 시작되면 강 인근 판잣집에서 불어난 강물을 피해 찾아온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 암파시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비와 바람을 맞으며, 수고한 건물을 세우며, 환난 당한 이웃을 돌보며, 주님을 예배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단행된 정부의 규제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 1만여 곳의 교회가 문을 닫았

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정확한 표현은 1만여 개의 '예배당'이 문을 닫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결코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나 예배당이 아닌 하나님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훼손된 성벽을 재건하듯 무너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GNPNEWS]

전 세계 100개국에서 진행된 세계복음화 현장, 한 자리에 모인다

2022 콰브레 마라나타 선교대회(5/31 ~ 6/3), 온라인으로 진행돼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의미하는 '당대(當代) 세계복음화'를 위해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순종해오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이 하신 일을 나누고 격려하는 모임이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열린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소망하며 지난 2012년부터 전 세계의 제자 찾기에 헌신해온 복음가득한교회(담임 조성욱 목사)가 주관하는 '2022 콰브레 마라나타'가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된다. 대회명인 콰브레 마라나타의 어원은 '정상회의(summit)'를 뜻하는 스페인어 콰브레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헬라어 마라나타에서 유래했다. 이 대회는 제자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서로 교제하며, 한해의 사역방향을 논의하며 매일 대륙별 모임을 갖게 된다.

조성욱 목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이 모임을 지난 2년간 갖지 못하고,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3년 만에 재개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이번 대회에는 그동안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진 100여 개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참여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 라이베리아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제공: 복음가득한교회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콰브레 마라나타 대회는 2016년 과테말라에서 처음 열리고, 2018년 한국에서 전 세계 46개국의 제자들이 참여하고, 2019년 대회에는 85개국 150명이 참가했다. 조목사는 "그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초대교회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목도했다."며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일은 쉬지 않고 이어져왔고 이번 대회에서 그 일들이 소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성도 200여 명의 복음가득한교회의 조목사와 성도들은 2005년 교회 개척 초창기부터 당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코

로나 사태 직전까지 매년 수차례에 걸쳐 전도팀을 구성, 성경에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힘 있게 증거'해왔다. 그 결과, 중남미의 쿠바, 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 대부분의 국가와 인도, 네팔 등 아시아의 10개국, 아프리카의 30개국, 유럽의 이탈리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 등 전 세계 100개국에서 제자들을 찾아냈다.

이 대회는 선교사, 목회자, 교역자, 성도 누구나 관심을 갖고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70-7661-0691 신청서: <https://forms.gle/nTBXhwQbu53qg2r58>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나이지리아 기독교 여대생, '신성 모독' 때문에 학생들에게 화형당해

나이지리아 북서부에서 5월 12일 한 기독교인 여학생이 신성 모독 혐의로 군중에게 살해당했다고 최근 연합뉴스가 AP통신 등을 인용해 전했다. 세후 사가리 교육대학에 재학중이던 이 여학생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소셜미디어 글을 올렸다."는 비난을 받은 후 보안실에서 보호되고 있었으나, 학생들이 몰려와 강제로 끌어내 투석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들이 믿는 신념을 비판했다고 몰려들어 죽기까지 때리고 불에 태우는 이들 안에 있는 분노와 잔인함을 십자가로 멸해 주십시오. 지금도 박해받는 나이지리아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탄의 악함에 맞서 끝까지 사랑과 용서로 나아갈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십시오.

인도 경찰, 교회 건물 태우고 성도들 위협... 당국은 수수방관

인도의 한 경찰이 교회 건물을 불태우고 성도들에게 예배를 계속할 경우 공산당 테러조직인 나살라이트(Naxalite) 반군으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지역 당국은 기독교인 박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모닝스타뉴스가 최근 전했다.

"인도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없애야 한다."고 믿고 있는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악행을 멈춰주십시오. 인도의 교회가 영원한 심판자 되신 주님을 의지해 인내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게 해 주시고, 정부도 정당한 법을 집행하게 해 주십시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양성 교육과정에 '동성애, 수간 옹호'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가 양성 교육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지지, 인간의 동물과의 성행위인 '수간' 옹호 등이 포함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데일리굿뉴스가 최근 전했다. 대표적인 곳은 '한국여성전화'로, 강의를 들은 상담가 A씨는 상담 스킬이나 정보보다 포괄적 성교육, 젠더 이데올로기, 차별금지법 옹호 등 편향된 교육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타락하고 왜곡된 성과 비뚤어진 이념을 오히려 옳다고 상담하며 부추겨 국민들의 정신을 더욱 황폐하게 만드는 정부 기관들을 치리해 주십시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에 더욱 복음으로 이 땅을 채워주시고, 정부 기관도 본래의 목적을 회복해 국민의 참된 도움이 되길 구합니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2년 6월 6일 ~ 2022년 6월 25일

6월 6일 ~ 6월 11일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문**)010-6687-9266, 6.6~10(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6.6~11(10~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6.7~9(09~21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6.10(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6.10(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6.10(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그 외 3교회 진행중.

6월 13일 ~ 6월 18일 6.11(09~18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6.14(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6.14~17(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6.14, 16~18(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6.17(09~21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6.17(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6.17(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6.17(0시)~18(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들람공동체(정**)010-3697-0641, 그 외 3교회 진행중.

6월 20일 ~ 6월 25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6.20~24(10~17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김**)010-7423-4953, 6.23(18시)~24(18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6.24(0~24시) ▶울산 북구 / 우정교회(박**)010-8308-4628, 6.24,25(10~22시 / 10~18시) ▶경기 고양 / 대화사랑의교회(김**)010-4058-0675, 그 외 7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선교현장 리포트

카렌교회의 신앙유산 이어가기, 한국교회에 도전

오늘 주일 낮 예배 순서 담당자는 한국교회 입장에서 보면 파격적이다. 치앙마이 시내에 있는 디베리 교회의 주일 예배의 사회자, 대표 기도자, 그리고 설교자까지 모두 평신도가 담당한다. 담임목사는 피아노 반주와 카렌어를 이해 못하는 교인을 위해 미얀마어로 통역해 주는 정도이다. 가장 파격적인 것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자가 28세의 여자 청년이라는 점이다.

파격적인 주일 예배 설교자

이런 모습은 한국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일반 예배 사회와 설교는 목회자의 책임이고 특히 주일 낮 예배는 담임목사의 특권과 같다. 오후 청년회 헌신 예배에서 예배 사회와 기도를 맡을 수는 있지만 설교는 목회자의 몫이다. 주일 낮 예배 때 청년들의 역할은 성가대 정도이다. 설교는 물론이고 사회나 대표 기도에서 청년들이 고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한국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이런 예배를 참석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분반아야 한다는 생각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일부는 신선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볼 때 교회의 질서가 없거나 미숙한 예배 준비라고 할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은 교회 규모가 작히고 전통이 확립되면 목회자 중심의 예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다. 그러나 이 교회의 운영 내용과 그 청년의 설교

를 들어보면 위와 같은 생각이 편견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오늘 참석한 100명 정도의 교인 중에 다수는 미얀마 출신이다. 가난한 미얀마보다는 형편이 좋은 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온 노동자들이다. 일부는 난민촌이나 미얀마에서 치료를 위해 온 환자 가족이다. 소수만이 태국 시민권자들이다. 태국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주변인들이다.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의 헌신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수입의 20% 내외를 헌금한다. 온전한 십일조는 기본이고 건축헌금, 구제비와 기타 사역을 위하여 분에 넘치는 헌신을 한다. 가난한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은 땅을 구입하고 교회당을 건축하였으며, 국경을 넘어온 환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

예배 형태는 전통적인 모습이나 얼마나 진지한지 아내와 나는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은혜와 도전을 받는다. 그들의 헌신과 예배에 대한 자세는 한국교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들의 신앙 전통도 성숙하게 지키고 있다. 오늘은 그들의 첫 신앙의 선조인 '꼬샤부(Ko Tha Byu)'를 기념하는 기념 주일이다. 1828년도에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거의 200년이 되었다. 꼬샤부 주일은 오래전부터 기념되는 예배이며 이날 주일 헌금은 카렌침례총회 전도국을 위한 헌금으로 드러진다.

설교자 '애처티' 청년은 카렌족의 첫 열매인 '꼬샤부'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한다. 그의 전도와 헌신을 오늘도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고 했다. 거의 200년 된 신앙의 유산을 청년이 기억하고 설교로 나누고 있다.

이 이야기가 한국교회의 예배 담당자를 카렌교회처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카렌교회도 청년들이 중심이 된 예배를 늘 드리지 않는다는 점도 그렇지만 그 교회는 청년들의 중요성을 구호로만 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주일 낮 설교를 청년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적 포용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모습과 대조적이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풍성해지는 복음의 의미

복음이 다른 문화에 심어지는 과정에서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표현 양식은 변한다.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해 주었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의 증명이다. 앤드류 웰스 교수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사건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로마적인 기독교로의 변화라고 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교인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 돼지고기를 먹는 기독교인이 가능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비



▲ 200주년 기념예배의 설교자로 강단에 선 애처티 청년. 제공: 오영철 선교사

로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인류의 구원자인 '주님'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A.D. 70년과 135년에 있었던 유대인 학살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망해 버렸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유대인 문화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을 위한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존을 넘어서 발전할 수 있었다.

한국교회는 쓰나미처럼 덮쳐오는 다양한 충격 앞에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2022년 4월 국민일보에 보도된 한국 국민의 교회 호감도는 25%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한국교회는 선교지에서 여전히 한국교회의 우월성을 주장할 형편이 아니다.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풍성하였지만 현재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디베리 교회 주일 낮 예배에서 설교하는 여자 청년의 모습은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장을 준다. 애처티 청년은

서양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다. 그녀의 배경과 학업은 미얀마에서도 미천하다. 전쟁을 피해 난민촌에 피신하였고 그곳에서 성경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렇지만 그녀의 영성과 헌신은 사도행전의 마게도나 교회의 모습처럼 성숙하다.

한국교회와 다른 예배 담당자들이지만 헌신과 신앙유산의 승계는 그들 후손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그들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그들 방식으로 정착된 신앙 전통의 결과이다. 연약한 미얀마 이주민 디아스포라 공동체이지만 이런 헌신과 신앙 계승이 부럽다. 대부분의 교인들 연령이 20대와 30대이고 어린아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은 또 다른 부러움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주변인들이지만 이들 가운데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다고 주장하면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 [GNPNEWS]



오영철 선교사



동역자 간증 | 316전화 상담

316전화 상담, 깨어진 이 세대 위해 기도하라는 초청장



▲ 사랑하는 손녀들과 함께. 제공: 이근희 전도사

본지는 다양한 영역의 동역자들과 함께 문서선교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316전화 상담으로 목마른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이근희 전도사의 은혜의 간증을 소개한다. <편집자> '316전화' 상담팀에 함께하자는 요청에 조심스럽지만 순종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복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

니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일반 상담이 아니잖아.' '나의 앞으로 답하는 일이 아닌데.' '누군가를 상담해 줄 만큼 복음으로 살고 있나?'라는 생각들로 고민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살아온 날들에 주님 함께 하시지 않았나?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것이 복음 아닌가?' 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다면 해

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게 되었다.

내담자들의 사연 대부분은 관계 문제였다. 실연, 술, 이성 문제, 직장 문제 등등.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우리 인생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문제였고 아픔이었는데 결론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느냐?'였다. 내담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데 쓰고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존재인 우리는 어디에서나 관계의 문제가 발생한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함으로 땅만 바라보며 살아간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량에 찌든 병든 자아 자체였다. 그러나 이 모

습이 지난 시간 속의 내 모습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기도 했다.

가끔 상담이 어려울 때도 있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거듭해서 상담요청할 때였다. 나는 상담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공격이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그때 기도하는데 부자와 나사로 말씀이 생각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눅 16:31)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사람의 마음을 나의 말로 어떻게든 도우려고 애쓰고 있는 나를 보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상담전화를 받는 일로 나를 부르심은 내 힘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들의 마음을 바꾸거나 복음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위로 하는 것뿐, 마음과 생각을 고칠 분

은 구주 예수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저절로 고백하게 되었다.

내담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세대의 깨어짐과 어그러짐과 방황과 절망을 보았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상담으로 부르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갈갈이 찢긴 이 세대의 상황을 직접 듣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초청이었음을 깨닫게 하셨다.

상담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 이 세대를 바라보는 눈을 내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어떤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경험하게 하신다. 오늘도 전화 너머로 만나게 하실 누군가를 기다려본다. 아버지 마음에 있는 영혼을 만나게 하소서. [GNPNEWS]

이근희 전도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리는 김용훈 장로 (복음가득한교회)



• 1면에 이어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업컨설팅 분야의 일을 하고 있고, 세계복음화가 교회의 비전인 복음가득한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막내 장로였는데, 최근에 막내를 면했네요. 장로 된지는 10년이 됐습니다.”

- 그래도 젊어 보이시네요.

“좀 이른 나이인 37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 어려움도 많았어요. 장로로서 마땅히 섬겨야 할 부분들을 잘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좋은 분들이 장로님으로 세워지셔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됐죠.”

30대 후반에 장로 장립을 받다

- 일찍부터 교회에서 중직자로 섬기셨는데,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어느 날 영어 선생님이 우리 동네에 사는 학생들을 랩실로 모이라고 방송을 하셨어요. 영문도 모르고 갔는데 교회 강도사님과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번 주에 교회에 꼭 나오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교회에 안 나왔죠. 그랬더니 영어 선생님이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번은 꼭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왔어요. 맨 뒷줄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몇 명 앉아 있더군요. 그때 선생님이 오시더니 우리를 인솔해가셨죠.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2 때 수련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기도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 교회에 나가신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후에는 어떠셨어요?

“그 이후로는 기회가 되는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루는 군 생활을 힘들어하던 한 고참을 세탁실에서 만났는데 옷을 다리면서 복음을 나누게 됐어요. 그분이 평평 울더군요. 그 이후로 세탁실에서 만나서 복음을 나누게 됐어요. 의무실에도 마음이 가난한 병사들이 많았어요. 제가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하면서 의무실에 입원한 훈련병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기회가 되는 한 의무실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단체로 모아놓고 복음도 전했죠. 그런데 제가 일반 병사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군대에 더 오래 남기 위해 부사관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장교로 지원할 자격이 된다는 걸 알고, 시험을 쳐서 장교로 임관 받았어요. 그런데 장교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후회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며 재밌게 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군복음화를 위해 장교 지원

- 청년시절부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셨군요. 복음가득한교회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군대 제대 이후 서울로 올라와서 2004년 11월에 취직을 했어요.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알아보던 중 개척교회를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던 차에 선교사를 준비하던 한 선배가 조성욱 목사님을 소개했어요. 알고 보니 바로 그 주일에 개척한다고 했어요.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개척멤버가 돼서 교회 중요한 일들에는 항상 앞장서서 섬겼어요. 그렇게 안수집사도, 장로 직분도 빨리 받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당대에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자는 선교사역, 이하 당세복)을 시작하시면서 해외 사역을 자주 다니셨는데,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시면 우리 모습을 보고는 답답해하셨어요. 각자 자기 삶을 살기 바쁘니까요. 목사님은 선교 나가시고 우리는 안주해 있었죠. 급기야는 장로들이 세워지고 난 1년 후에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하셨어요. 당세복 사역을 하며 성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는 게 사임하시겠다는 이유였어요. 실제로도 목사님은 다른 사역지를 알아보셨어요. 결국은 장로들이 찾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사실 목사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내고 있었거든요.”



▲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과 함께. 제공: 김용훈 장로

- 이후 어떻게 됐죠?

“2012년 10월에 선교지에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미국 마이애미 사역을 따라갔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제게 은혜를 많이 주시면서

삶의 목표나 방향이 바뀌게 됐어요. 그전에도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외쳐왔어요. 그러나 막연히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 있을 때는 될 거라고 믿지 않았죠. 2000년 동안 안됐으니까요. 그러나 마이애미에 가서 에코쿠바라는 단체를 통해 쿠바의 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되고, 미국 교회가 전도를 하면서 부흥의 불이 붙게 되고,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기회들이 열리는 걸 보게 되면서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생하게 보게 됐어요. 도미니카에 가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제자들을 찾아내시고, 그를 통해 각 나라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해외 사역을 갔다 올 때마다 직장에 다시 가야 한다는 게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너무 많이 보게 됐으니까요. 더불어 제 믿음의 상태도 보게 됐죠. 선교 현장에 가보니 그동안 제가 믿음생활이라고 했던 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 믿음이 아니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한번은 구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선교현장에서 보니 그곳 제자들은 매일 11km씩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들은 그 나라를 살리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드려서 복음을 전해요. 물론 저도 한국에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당세복 사역도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직장에서 기도 모임도 하고 복음도 전했어요. 그러나 믿음인 줄 알고 살았던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에 비춰 봤을 때,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성경 속 사람들의 삶이 저와는 많이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메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집사였어요. 바울은 자기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라면서 비비 자매를 소개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을 위해 목까지도 내놨다고 소개해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평신도 중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나 생각하게 됐죠. 장가도 가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찢리질 않을 평신도가 누가 있겠어요. 보면 볼수록 저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어요.”

- 선교 현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셨군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된 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선명한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만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전 세계에 세워지면 당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 곧바로 현실에서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찾는 제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해외 사역을 갔다 올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위한 일들만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성경대로 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히 보면서 그걸 더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직장 때문에 잦은 해외 사역을 가는 게 불가능했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2016년 12월에 사직서를 냈어요.”

- 해외 사역을 위해서 직장까지 그만두셨어요? 주변에서 많이 말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 오히려 저를 못 막는다며 변호해 줬어요. 그동안 우리는 아침 7시 30분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수요일에는 말씀도 나왔어요. 우리 지점원 33명에게 복음도 전했고요. 물론 다른 지점장들이 찾아와서 적당히 하라고 말리기도 했죠. 꾸중도 듣고요. 그래도 주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아름답게 10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관리직을 내려놓고 영업사원으로 새로운 곳에 들어갔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사역을 시작했어요.”

- 한 가정의 가장이 탄탄한 직장을 내려놓고 보수가 적은 곳으로 옮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흔들리신 적은 없었나요?

“이런 결정은 복음이 크게 보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주님이 제게 아내와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주님이 아내와 자녀를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으면 힘들죠. 이것이 평생 싸워야 할 믿음이에요. 천국은 분명히 있고, 제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 자녀들

이 천국에 가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자녀들이 천국에 못 가면 그것보다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힘들죠. 그러나 사탄은 현실을 보라고 공격을 해요. 현실만 보면 현실이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현실만 선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한 발 내디뎌야죠. 그럼에도 그 과정은 쉽지 않더군요.”

선교를 위해 직장을 내려놓다

- 그 과정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관리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카드빚을 갚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신용에 문제가 생겼어요. 신용에 문제가 생기니 해외 사역을 못 나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회사에도 문제가 될 수 있었죠. 개인적으로 자존심도 상했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 오히려 주변 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팠어요. 직장을 옮길 때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안 채워주셨죠. 감사하게도 지금은 신용이 다 회복이 되었지만,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이 지나오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헌금이 들어오면 세계복음화를 위해 무조건 흘려보내시는 목사님을 옆에서 보면서 저도 쌓아 놓을 수 없었던군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길을 갈 수 있겠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힘들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항상 주시고 넘어가게 하신 것 같아요.”

- 고난 중에 영광도 보셨을 것 같은데, 해외 사역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부터 모든 대륙을 다 따라다녔어요. 파키스탄, 아프리카, 유럽에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9년 1월에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였어요. 현지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집회를 하기로 하고, 마침 조 목사님이 갈 수 없어서 여러 목사님들과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상치 않게 목사님들에게 비자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오직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평신도밖에 없었죠. 저, 통역사, 장로님 두 분, 집사님 한 분. 처음으로 평신도끼리만 해외 사역을 하게 됐어요. 두렵고 떨렸어요.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조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 5면에 계속

📖 기획 | 창조 이야기 (72)

마르크스, 진화론 학습하며 반기독교인·공산주의 이론가 됐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진화론과 공산주의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아주 깊다. 진화론 없이 공산주의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으며,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론으로, 인본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설립자 로저 내쉬 블드윈은 ACLU의 목적은 공산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산주의의 창립자 칼 마르크스 1848년 '공산당 선언' 발표

공산주의의 창립자 칼 마르크스는 17세 때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논문을 썼다. 그 후 대학에 간 그는 철학을 공부하고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리고

진화론과 결합한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개발했다. 마르크스는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의 기초를 진화론에 뒀다. 마르크스는 1848년에 '공산당 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을 발표했다. 이것은 어떻게 나라를 파괴시키고 공산주의로 전복시킬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제일 먼저 '사유 재산을 폐지하라.' 마르크스가 한 모든 일들은 모두 반기독교적이었다. 성경은 사유 재산을 중요한 문제로 다룬다. 재산권 없이는 자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레위기 25장에는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라고 말씀한다. 성경 체계에서는 영원히 재산을 잃어버릴 수 없다. 또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를 가졌다고 말한다(왕상

4:25).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잠 5:15) 사유 재산은 필수적이다.

사유 재산 폐지, 누진소득세 개발

마르크스는 누진소득세도 개발했다.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가져간다.' 그는 상속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성경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라고 한다(잠 13:22).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것을 반대했다. 재산권을 몰수했다. 진화론은 돈의 힘이 배후에 있는 공산주의 철학의 기초이다. 마르크스는 또 중앙은행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요즘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행 체계, 연방준비은행은 마르크스의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한다. 마르크스는 통신과 교통수단의 정부 소유를 주장했다. 그리고 공업과 농업의 정부 소유, 노동력의 정부 통제를 말했다. 기업농과 지역계획 등 모든 것이 기



▲ 베를린 거리에서 공산주의 깃발을 흔드는 지지자들. 출처: Moises Gonzalez on Unsplash

독교와는 정확히 반대다. 공립학교의 무상교육도 마르크스의 사상이었다. 히틀러는 "내가 교과서를 통제하게 되면, 내가 나라를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아주 어릴 때, 기독교 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찰스 다윈의 책을 읽고 무신론자가 됐다. 스탈린은 소련의 자기 국민 6000만~1억 명을 죽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공격했을 때 폴란드는 완전히 포위됐다. 그들은 폴란드 관리들을 사로잡고 스탈린에게 물었다. "저 관리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그냥 폴란드인이잖아. 처형해." 이들은 1만 4700명의 관리들을 커텐 숲에서 처형했다. 대량 학살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진화론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월하

고 그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전멸하는 것이 최선이 된다.

캄보디아의 폴 포트는 자기 나라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한 달에 1만 5000명씩 죽였다. 그 당시 선교사들 중 살아남아 중국을 빠져나왔던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했다. "이상하게도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마을에 처음 왔을 때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맨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은 진화론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진화론이 공산주의의 기초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GNPNEWS]

• 4면에 이어 Interview

목회자 없는 해외사역에서 강의하며 은혜 누리

본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메신저로 서게 됐어요. 그때 주의 종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치열하게 말씀을 전하는지 맛보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그때는 집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교재가 다 돼 있었어요."

- 교재가 있군요. 어떤 거죠?
"바울도 선교를 하면서 서신서를 쓰신 것처럼 조 목사님도 사역을 하면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좋지만, 보통 며칠 동안만 메시지를 전하고 다른 나라로 이동해야 하고, 또 전 세계에서 세워진 제자들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통일된 교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총 12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재가 나왔고, 4~5년 만에 10여 개 언어로 번역됐죠. 성경대로라면 반드시 그 나라를 살릴 제자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도 고린도교회가 서게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를 살릴 제자를 찾는 게 중요했고, 그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희미하면 제자도 희미하다, 선명한 복음이 증명되면 제자는 나온다. 그래서 복음만 잘 준비되면 된다.'면서, 그렇게 선교현장에서 복음의 내용을 정리한 교재를 만들게 됐어요."

-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나씩 만들어진 사역이네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매우 기대됩니다. 그동안 당세복을 10년 동안 해오면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국내 전도에도 마음이 있었는데, 극동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또 코로나로 해외 사역이 막힐 때는 한국에서 신학 박사 과정 중이신 토마스 목사님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영어권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줌(Zoom) 모임이 확산되면서 대륙별, 언어별, 나라별로 모임 뿐 아니라 이제는 한인선교사 사경회를 하게 되었고, 국내집회까지 하게 됐죠. 또한 지금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전 세

계 제자들이 모이는 쑬브레(정신회의) 선교대회를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어요. 지난 2년 동안 각 나라의 제자가 세운 또 다른 제자들도 있더군요. 이런 추세라면 복음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1만 6000여 개 종족에서 제자가 찾아져야 하는데, 앞으로 10년 내에 이 모든 민족에서 제자가 찾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찾아지면서 앞으로 10년은 당세복의 마무리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 마지막으로 기도제목 말씀해주세요.
"성경에는 목사는 선교하고 평신도는 안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스테반 집사가 순교한 후 초대교회가 흩어졌어요. 스테반은 집사인데 구약을 풀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한국교회 집사 중에 그럴 사람이 있겠나 생각해요. 초대교회의 일꾼 집사는 성도들을 관리하고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평신도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해요. 오늘날 이런 집사가 있어야 해요. 해외에



▲ 케냐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김용훈 장로. 제공: 김용훈 장로

있는 제자들은 교재가 닳아서 찢어질 정도로 갖고 다니며 메시지를 힘 있게 전하죠. 이런 모습은 선교지에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러한 집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 겸손하게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복음의 순수함을 허락해 주시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내 인생 최고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흑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해도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제 기쁨이 될 수 있는 평신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GNPNEWS]

Y.K.

복음의 능력

단 한 가지 죄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멸망이다. 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생명 얻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일이다. 죄를 버려라. 죄와 이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없다. 당신 속의 반역자를 내쫓지 않으면 하늘과 화해할 수 없다.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눕지 말라. 죄와 결별하든지 영혼을 잃어버리든지 양자택일을 하라. 한 가지 죄라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당신이 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다. 죄가 당신을 위해 마련해 놓은 교수대를 보라. 죄를 하만처럼 취급하라(에 7:9~10). 죄가 당신을 겨냥하여 계획했던 사형집행을 당신이 먼저 죄에게 실행하라. 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라.

[GNPNEWS]

돌이켜 회개하라
(조셉 얼라인)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복음에 대한 두 반응 (2)

천국을 갈망할 정도로 심령이 가난한가?

구제하려면 나팔을 불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값있으니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마 6:4)이 있다. 이는 유대인의 걸치레적인 신앙을 참된 의인의 신앙으로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내용이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것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펼쳐주신 창공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먹는다. 저기 들에 백합화는 하루에 피었다 지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을 옷보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는 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왜 근심하여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느냐?'고 말씀하신다(마 6:25~31). 예수님은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입을 지으신 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으며 몸을 지으신 이가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산상 보훈을 주셨다.

천국 비유로 알려진 마태복음 13장은 일곱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셨다. 육신을 입고 유한한 시공간의 제한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는 차원이 다른 '천국'에 대한 말씀은 상상도, 짐작도 불가능하기에 주님은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비유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天壤之差) 달라진다. 준비된 사람의 귀에는 쑥쑥 들어오고 손에 잡힐 듯이 깨달아지지만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마 13:15)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완악하여 못 알아듣는 것이다. 이는 지능지수(IQ)의 문제가 아

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진리는 마음으로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알 수 없기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대하면 마음에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를 누릴 수 없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일러스트=이예원

(히 10:26~29) 충격과 감격으로 받은 복음을 존재 가장 깊은 곳, 마음 중심으로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받아 적당히 감동하고 내게 실재가 되지 않은 채로 살면 언젠가는 이 복음을 무기로 쓰게 된다.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그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기에는 그는 짐짓 죄를 범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 두려운 형벌을 받게 된다. 복음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을 자가 다른 동기로 그 비밀만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처럼 천국 비유를 들을 때 우리 마음 중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천국을 갈망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 5:3)를 비유로 풀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며 받고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2018년 6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화선교사. LOG미션 대표)

2022학년 헤브론원형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안내

헤브론원형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다음세대 선교사들의 행복한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세대 선교사들은 응답하십시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 모집 대상**
 - 2022학년 현재 초등학교 4학년(11세)부터 중학교 3학년(16세) 연령대의 학생. (고등학교 1학년(17세)은 1년 하향지원 가능합니다.)
 -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분명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자발적으로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
- 입학설명회**
 - 2022년 7월 2일(토) 오후 2시~5시, 장소는 「입학 설명회 참가 신청자」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 입학설명회 참가 접수 기간: 2022년 6월 6일(월)부터~2022년 6월 25일(토)
 - 참가신청은 이메일(hebronschool@hanmail.net)로 접수 바랍니다.
 - 입학설명회는 지원하는 학생과 양 부모님 중 한 분은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아래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 원서교부**
 -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만 교부합니다. (입학원서 전형료 5만원)
 - 원서접수기간: 2022년 7월 2일(토)~2022년 7월 22일(금) (22일 소인까지 받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아래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 입학전형 일정**
 - 1차 서류심사 및 1차 합격자 발표: 2022년 7월 30일(토)
 - 2차 2022년 8월 1일(월)~2022년 8월 5일(금) 'Camp, Go up to Hebron!' (Camp기간 중 면접과 시험이 포함됩니다.)
 - 2차 합격자 발표: 2022년 8월 6일(토)
 - 3차 최종면접: 2022년 8월 8일(월)~2022년 8월 10일(수) (2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2022년 8월 13일(토)
 - 2022년도 입학식: 2022년 8월 30일(화)
- 문의 및 접수처**
 - ☎010-2461-1718, 010-7323-4641, 070-4369-7656 헤브론원형학교 입학사무처
 - hebronschool@hanmail.net
 -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2길 168-66 헤브론원형학교 (구 시온수양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선한사업 / 선한기업

엘타임

선한사업 디모데전서 6:17~19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기업 잠언 16:8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 전문소방시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문의 : 033)761-0078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한심한 저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신앙 훈련을 받은 이후, 내가 복음으로 온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교만한 생각이 들었다.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방글라데시로 선교도 가고 교회를 섬기며 사랑도 많이 받고 즐거움도 있었지만 내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었다.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점차 기쁨이 사라지고 매일 십자가를 이고, 지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다.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나의 가능성이 하나하나 끊어지고 나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이 찾아왔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허무했다.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절망스러울 때, 다시 복음학교에 가게 됐다. 메시지를 들으며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음이 사실로 믿어졌다. 예수



일러스트=고은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나를 산 제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했다. 그리고 한 선교단체에서 놀러오라는 초대와 말씀을 주님의 사인으로 받고 선교단체 간사로 들어가기로 했다. 단체에 들어가면서 주님은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여지를 남기지 않을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소유로 종신토록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그동안 기초수급자로 매달 정부에서 나오는 돈에 의지해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기

로 하면서 수급자를 포기하기로 했다. 두렵기도 하였지만 혼자 걷는 길이 아닌 믿음으로 먼저 그 걸음을 살아온 증인들이 눈앞에 있었기에 힘이 되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시작하기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얼마 전 센터가 화성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리고 공사를 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예수는 나의 힘!’을 외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공사를 했다. 그런데 4일을 넘어가면서 체력적으로 힘들

기 시작했다. 공사를 도와주러 온 선교사님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분들을 통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 전심으로 주님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다. 이분들은 잘 쉬지도 않고 공사를 하셨다. 어느 날은 공사가 밤 10시 30분을 넘어갔다. 마음속에 있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 지독한 선교사들!” 정말 주님께 하듯 전심으로 모든 것을 하는 모습은 도저히 못 견뎌, 정말 지독했다. 이번 이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나는 정말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시키는 일도 실수 연발이었다. 그러나 주님이 한심한 나를 써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을 주님이 행하실지 모르지만, 주님께 나를 드러 순종하는 행복한 행진이 시작된 것에 감사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GNPNEWS]

이지훈

복음의 소리 316
1670-3160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파탄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싶어요

Q 15차례 수감생활, 빚도 수천만 원, 가정은 깨지고, 자살도 지옥같까봐 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동의했지만 믿음의 삶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A 주님께 감사합니다. 좀 뉘우치고 그래서 어디 몇 군데 고친다고 개선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총체적으로 인생의 판을 새로 짜지 않으면 새 출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새 출발을 하는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 그만 포기하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담자도 끝내고 싶었던 그 생명, 그 생명이 사실은 이미 죽어 끝장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신다면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태어난 어린아기는 적신으로 오지만 그 아이는 생명 하나, 그것 하나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생명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생명기에 존귀한 것처럼 만약 내담자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만 한다면 내담자도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동의를 했지만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지 않으시렵니까? ‘복음학교’에 참석하여 새로 태어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권유합니다. [GNPNEWS]



부흥을 위하여

北, 코로나19 대확산에 지하교회도 위기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해 온 북한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 23일 기준 약 3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역시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이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하다고 오픈도어 선교회가 최근 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월 12일,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지 2년 만에 노동당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수도 평양에서 첫 오미크론 사례가 발생했음을 발표하고,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최대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오픈도어는 “코로나19는 2019년 말부터 북한 사역에 가장 큰 걸

림들로 작용하고 있어,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들과 현지 파트너들은 엄격히 통제된 상황 속에서도 방법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 내에서도 공식화된 이상 북한 사역과 프로젝트를 비롯해, 현장 사역자와 현지 파트너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픈도어는 또, “지역 봉쇄 조치는 북한 시장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고, 일상용품과 식품 가격을 기하급수적으로 폭등시키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모든 의심되는 활동, 모임, 이동과 소지품을 추적하는 등 심각하게 사회를 통제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도움이 절실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 지하 비밀 신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육적 필요들을 채워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는 오픈도어에 전달한 비밀편지에서 “코로나 전염병 확산과 자연재해들로 인해 모든 상황들이 우

리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어려움과 방해요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믿는다.”며 “우리가 서로 신앙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하듯, 저희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北 주민, 극심한 생활고에 죽기를 무릅쓰고 탈북 시도
코로나 사태 이후 한동안 뜸했던 북한 주민들의 탈북 시도가 극심한 생활고로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양강도 혜산시의 한 주민소식통은 지난달 16일 “코로나로 인한 장기기간의 국경봉쇄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일부 주민들이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철저한 국경봉쇄로 주민 탈북 사건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 단순히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혜

산에서 일가족 3명이 압록강을 건너 탈북을 시도하다가 탈북 직전에 경비대에 적발돼 체포됐다.”며 이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이 철저히 차단된 것을 알면서도 브로커의 도움도 없이 무리하게 무작정 강을 넘다가 잡혔는데, 당국은 이러한 가족 단위의 탈북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국경에 철조망이 설치되고 경계도 강화되었지만 차라리 탈북을 하다가 죽을지언정 코로나 전염병 확산과 지금 같은 식량난이 계속된다면 이래 죽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고 전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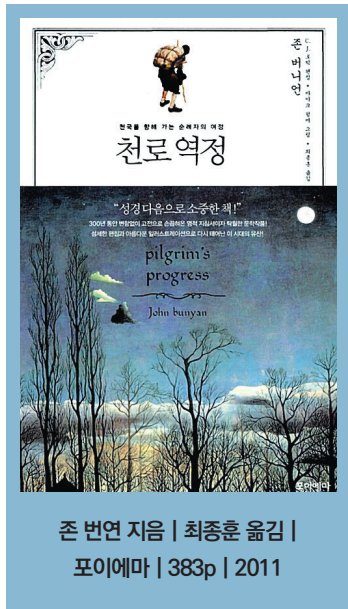


▲ 북한 개성 거리에서 등교하는 어린이들. 제공: 오픈도어선교회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존 번연 <천로역정>

소망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 가는 나그네 길



많은 성도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는 존 번연의 천로역정. 이 책을 접하는 젊은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만 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C.J. 로빅은 원작의 아름다움과 분위기를 지키면서도 이 시대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가다듬어 다시 편집했다. 책이 발간된 이래 무려

300년 동안 성경의 뒤를 잇는 베스트셀러인 천로역정을 통해 우리 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걷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크리스천이 순례자가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 때문이었다. 복음 앞에 서도록 도왔던 내 삶의 처절한 절망, 괴로움이 떠올려졌다. 절망의 자리에서 참된 소망을 붙들게 된 것은 주님의 신비이다. 그는 손에 들린 책을 읽어나가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본질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며 울부짖었다. 그때 나타난 전도자의 안내를 통해 순례의 여정이 시작된다. 첫 발걸음을 떼던 그 순종의 시간이 오버랩되어 온다.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고픈 그 간절함, 목마름의 시간들. 모든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다.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하나와 지명들은 몇 번이고 곱씹어 묵상하며 내 것으로 삼아야 할 요소들이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에

무엇을 특별히 조심해야 하고 무엇을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지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이다.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고 막는 장애물, 걸림돌, 뒤돌아서게 하는 것들 때문에 까마득한 인생들이 마른 뼈와 같이 되었으리라.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했지만 낙담의 늪에 빠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약한' 사람. 좁은 길이 아닌 쉬쉬 보이는 길을 선택했던 '허울'과 '위선', 이어서 등장하는 '소심'과 '불신'까지 한결같이 좀 더 쉬쉬 보이는 길,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이들이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 7:13~14)고 말씀하신다. 허울과 위선, 소심, 불신, 유약함.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의 은혜를 구한다.

치열한 순례자의 여정

크리스천은 그들을 놀리고 비아냥거리며 비난하는 이들, 끊임없이 핍박하며 비판하고 꾸짖는 이들이 있는 '허망시장'을 지나야 했다. 그로 인해 크리스천과 신실은 족쇄를 차고 철창에 갇혀 사형집행 날짜가 결정되기를 기다렸고, 결국 '신실'은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 후에 '소망'과 함께 할 때에도 '의심의 성', '절망거인'을 만나면서도 결국 고난을 통과한다. 이때 가장 힘들었던 싸움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싸움이었다. 냉정하고 치열하게 모든 과정을 통과하며 자기 자신(자아)과 싸우게 하시고, 보물(말씀)과 열쇠(기도)를 사용하여 넉넉히 통과하게 하심이 참 감사하다.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면 반드시 건너야 할 강 앞에서 있다. 그 강에 뛰어드

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큰 두려움 속에서도 죽음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시간이었다. 정신을 차린 크리스천이 큰소리로 말한다. "오, 주님이 다시 보여!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사 43:2)이라고 말씀하시네!" 이 외침이 내 안에 울리며 눈물이 울컥 났다.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침몰시키지 못하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믿음의 싸움이다. 그곳에서 천사들이 이끌어주며 마침내 성안으로 들어섰다. 이것이 바로 우리 순례의 여정의 마지막 순간이리라! 열방의 절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온다. 전쟁의 참혹함, 전염병의 창궐함. 이 밖에 얼마든지 맞닥뜨리게 될 절망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않을 것을 믿는다. '소망'이 없었다면 크리스천 홀로 끝까지 가지 못했을 것이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 곳에 서게 하소서!' (GNPNEWS) 정준영 선교사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하나님과의 만남, 영원한 사랑의 만남

필자 유명기 목사는 신약신학 학자로 후학을 가르치다 정년 은퇴한 이후, 현재 이스라엘에서 만학도로서 성서학과로 유명한 바르일란대학에서 구약학을 수학 중이다. 이역만리에서 사랑스러운 손녀딸에게 다양한 인생의 주제에 대해 보낸 편지를 지인들에게 공유, 공감받을 중 본지에 게재하게 됐다. 인터넷신문에는 시리즈로 게재되고 있다. <편집자>

예진아! 먼저 내가 대학생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할아버지는 네가 대학 4년의 세월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며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너에게 편지한다.

예진아! 대학 4년이 왜 중요할까? 성실하게 보내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기 때문일까? 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대학 시절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한국의 지성으로 불렀던 이어령 박사의 글로 전하겠다.

이 박사님은 오늘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검색'과 오늘에 대한 '사색'과 미래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다람쥐가 바퀴 돌듯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반사라고 생각한다. 너만큼은 박사님의 조언대로 살았으면 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다. 예진아! 너의 오늘이 있게 한 너의 과거에 대한 바른 검색이, 내가 오늘을 바로 사색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너의 오늘의 바른 사색이 너의 미래를 결정하는 탐색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네가 대학을 졸업하면 생각할 여유가 없는 그런 생각, 어떻게 보면 현실을 무시한 망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낭만적이고 긍정적 미래를 꿈꾸면서 4년을 보내기 바란다. 그러기에 대학 4년은 너에게 너무도 소중한 기간으로 알고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다음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너의 대학 생활 4년 가운데 이루어질 소중한 만남에 대해서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을 만



출처: Josh Post on unsplash

남이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소위 '흙수저' 혹은 '금수저'로 태어나기 때문일까?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실 때 세상 말로 말한다면 다른 피조물과 달리 공들여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그들 속에 넣어주어 그들이 그런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 가면서 자녀들을 낳아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도록 하셨다. 돌집에서 돌을 제거하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니? 허물어지지. 하나님은 가정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가정을 제정하셨다. 가정을 이루는 남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면서 그 사랑 가운데 자녀를 낳고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흙수저' '금수저'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났고 태어나서 사랑 가운데 양육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감사하게도 너와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부모와의 만남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만남을 주셨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최고의 만남이 있다. 그 만남은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이 있다. 사랑하는 남녀의 만남도, 친구의 만남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도 헤어짐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사랑의 만남이다.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공급받는 사랑은 모든 만남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만남이다. [GNPNEWS]

유영기 목사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2. 5. 6 ~ 5. 24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종채 권순호 김경선 김나은 김다경 김득기 김사회 김선례 김선희 김신애 김원숙 박민숙 박성규 신경순 신혜경 이은주 이장원 장근혜 정금자 정효신 차상복 차익수 차인순 최근희 최 남 하은숙 홍고집 무명

교회 및 단체

게르교회 고현교회 새순교회 서현교회교정팀 웹 열매교회 주소방교회 참종양다교교회 햄시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재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